

## 한국승복 염색에 대한 연구

차 금 주 · 정 옥 임\*

조선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 A Study on the Traditional Dyeing of Korean buddhist Monk's Robe

Keum-Ju Cha · Ok-Im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 ABSTRACT

The philological consideration of Korean Buddhist Monk's robe and its reviving have been investigated in traditional way. The configuration and colour of Korean Buddhist monk's robes have been properly adapted for an period, territory, and atmospheric phenomena. In case of Korea, introduced Buddhism from China realize modern robe from under the influence of fusion of Chinese ornament culture and Korean traditional ornament culture.

As a result of this modern robe has been consisted of a Buddhist monk's robe and a cope. The modern robes has been significantly affected by industrialization, contrary to ancient time taxed robes as public imposts. At present be familiar in mass production we have a preference for the easier way in making and even color forming. In this paper it is focused on dyeing part, which recognized its important in latest time, at first declined according to appearance of chemical dye, evaluated its convenience in use. That is, it is increased natural dye, people begin with recognition of difference of physical properties for dress dyed with chemical pigment and that with natural pigment. In consequence, I have presented that both making colour of gray using traditional method, and three demolished-color prescribed by Buddhist law. Of course, though it become generally know that dyeing of robes occupied significant part of traditional natural dyeing. But in case of religion, it also is important to know symbolical meaning involved in its colour. Most of Buddhism-believers or even Buddhists who actually be dress in robe are without knowing the meaning of colour, or its revealing method. There, I have considered making three colour of demolished- color included blue, black, and red, and also represented dyeing method of Buddhist monk's robe using both charcoal and ink-stick. From religious pont of view, as robes contains invoking of blessing, I have an intention of improvement way in dyeing and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through consideration of traditional dyeing method. And I have also intended to restoration the value of robe's colour, disappeared by the time. moreover, I have shown that dyeing with natural pigment is profitable for both environment and sanitary aspect.

Key Words : Monk's robe(승복), robe's colour(승복색), Buddhist Law(계율), symbolical meaning(상징적 의미), demolished-colour(괴색), traditional natural dyeing(전통염색), charcoal dyeing(목탄염색), ink-stick dyeing(먹물염색), represented dyeing method(염색법의 재현)

## I. 서 론

### 1. 연구목적

원래 승복이란 인도의 가사에서 유래되었다. 초창기 인도 교단의 출가한 스님들이 입었던 三衣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승복의 의미는 인도 초기 가사의 범위에서 많이 변화되었는데 단지 가사만을 승복으로서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가사속에 착용하는 장삼이나 그이의 스님들이 몸에 지니게 되는 모든 것을 승복이라고 한다.

가사의 명칭은 매우 많은데, 카사야라는 범어에서 유래되어진 것으로 염의·간색의 적혈색의 괴색 등으로 漢譯되어지는 것으로 원래는 攢師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말한다. 인도의 승단에서 제정된 법의를 그 색깔 때문에 가사라 부르게 되었으며 그 색은 청·황·적·백·흑의 5가지 정색을 피하고 색이 섞이고 바랜듯한 것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승복으로 불리워지는 長衫의 경우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원래 착용하지 않았던 옷이다. 「袈裟의 연구」에서 보면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되어진 무렵에는 인도의 풍습을 그대로 착용하였던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중국의 승려들이 삼의를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어깨를 드러내는 것을 후한시대의 여승들이 보고는 좋지 못하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편삼이라 불리우는 편의를 승려에게 주었다”고 한다.<sup>1)</sup>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에 전래되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후와 衣襲에 따라 가사에 편삼을 착용하였던 것이 나중에 우리 나라에서는 가사에 장삼을 두르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장삼이란 옷옷인 편삼과 아래 내의류에 해당되는 군자를 껴맨 직철을 말한다.

당초의 가사의 기원은 사람이 내다 버린 옷이나 죽은 사람의 옷을 백팔염주를 본 따 백팔개의 조각

천을 모아서 꿰매어 이은 것(衲衣)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불규칙하였던 것이 후에는 바르게 꿰맨 것으로 변화되었는데 인도에서는 이 가사 하나로 사철을 났으나 중국에 건너와서 상의가 되었고 다시 우리 나라에 건너와서 전통적인 우리 옷 위에 가사를 걸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두 기후나 습속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본다.<sup>2)</sup>

이러한 승복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승복의 색에 내포된 의미를 고찰해 보고 그중 회색 빛깔의 장삼색을 재현해봄으로써 승복과 승복색의 참 의미를 반추시며 정신적 가치를 전양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및 범위

승복은 종교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의복이 갖는 의미와는 엄연히 다르다. 불교에서는 윤리의 상황적인 전개를 강조하는데, 불교 윤리의 근간은 戒와 律로 나뉘어 정해졌으며 戒가 온전한 인간의 회로를 도모하는 나침반이라 하면 律은 공동생활을 위한 행위규범을 말한다. 그래서 불교의 律에서는 승복의 색과 모양과 염색에 관해서 조금씩 규정해 놓았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인 규율에 바탕을 두되 불교자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두타행' 즉 모든 세속의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상을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식과도 같은 승복 및 승복 색에 대해 律의 규정에 따라 고찰해 보고자하며, 연구 범위는 율에 정해 놓은 가사의 색상과 長衫의 회색염색 재현에 한정하였다.

#### 2) 연구 방법

승복은 크게 가사와 장삼으로 나누어지며 가사의 색상에는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의 것과 불교가 전래되어진 그 문화권 나라들의 기후·풍토·습속에

의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서부터 적갈색의 단순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기는 하나 그 근본은 모두가 같으므로 律에서 정하여 놓은 가사의 색상을 찾아 내는데 노력하며, 우리 나라·중국·일본에서만 쓰여지고 있는 장삼에 대해서는 우리의 회색 염색법을 옛 선인들의 방법 그대로 고찰하여 재현 해 보는데 주안점 두었다.

회색장삼의 경우는 그 색상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숯, 재, 먹중 숯과 먹을 이용하였다. 숯 염색에 있어서는 숯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염료로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과 직접 염색을 하였을 경우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회색 빛깔의 변화 및 염색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먹물 염색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전통적인 먹 고찰은 불가능하지만 중국 먹의 역사에서 그 뿌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승복염색의 의미와 방법을 재현하는데는 여러 스님들의 조언 및 시범을 참고하였음도 밝혀둔다.

## II. 본 론

### 1. 승복에 내포된 의미

#### 1) 승복의 기원

僧服이라 함은 승려들이 입는 옷으로 교단의 제정에 맞는 如法한 옷이라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 法服·法衣라고도 한다. 원래는 일반인들이 입던 흰 옷을 버린 것을 마름질하여 기워 누빈 것(衲衣)으로 割裁衣라고도 하며 원색을 탁한 색(壤色)으로 만들어 불교 승려의 표시로 삼았던 三衣였다. 三衣를 袈裟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기후, 풍토의 관계로 袈裟 속에 內服格인 僧伽梨나 福田衣 그리고 옷자락을 꿰매어 붙인 옷이나 관복, 속복을 착용하게 되고, 그것들이 여러 종류의 法衣로 구성되어 袈裟(상의)와 구별하게 되었다.<sup>4)</sup>

인도의 단순한 옷으로써 시작되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袈裟는 불교가 점차 불교 문화권의 여러 국가나 후대에 전승되어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후·풍토·습성들의 조건에 알맞게 바뀌어 변화

되어지고 첨가되어지는 모든 것을 法衣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즉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일본으로 전하여 오는 동안 袈裟는 모양이나 색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律에서 규정하는 袈裟는 석가모니의 사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나 환경의 변화와 기후에 알맞도록 변화하는 융통성을 허락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sup>5)</sup>

원래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의 僧服은 袈裟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모든 욕심을 버리겠다는 의미에서 걸치는 의복이기 때문에 속옷이나 그 이외의 옷을 걸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우리 나라에서는 袈裟 속에 長衫을 착용하고 있어 자연환경에 따라 가지 수가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律에 규정한 승복에 관한 내용을 보면 가사는 속인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삼의와 발우를 갖추게 되면 이는 욕심을 적게 하려는 의미와 같다.<sup>6)</sup>다고 行事鈔 卷 下1'에서 밝히고 있고, 또 佛說梵網經<sup>7)</sup>에서는

“불자는 두타행을 행하는 두 시기와 겨울과 여름의 좌선을 행 할 시기에 항상 삼의와 발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니 이는 항상 새의 두 날개와 같으니라. 고 적고 있다.”

이는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식인 삼의와 발우에 대한 규정들이다. 욕심을 버리고 속세에 일어나는 갖가지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집착을 버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태도로서 이를 두타행이라고 일컫는데, 최소한의 의복과 최소한의 식기를 허용하여 어질고 성스러운 추구에 있어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헛된 욕심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하여지는 것들이다. 또 삼의를 갖추어야 할 이유에 관해서는 수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반드시 점잖은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거친 형상, 즉 몸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려 할 경우 옷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면 절대 허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가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바르지 못한 옷차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sup>8)</sup> 의복의

의미는 출가시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니 이를 수용하고자 하였을 경우 의복의 제도를 마땅히 살펴하고 그러한 법의 양식을 어기지 않도록 분명히 규정지어 놓으나라.<sup>9)</sup>고 하였다.

이러한 해탈을 근본으로 여기어 따르게 하고 또한 이는 옛날부터 바르다 인정되어 따르게 하니니 죄를 짓는 것이 밝게 들어 나아 법이 곧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라. 스스로가 이를 잘 검토하여 지켜 나가야 잘못된 점을 고쳐 보낼 수 있는 것이다.

## 2) 승복의 규정 이유

삼의에 관한 바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은 薩婆多論<sup>10)</sup>, 梵網經<sup>11)</sup>, 行事鈔資持記<sup>12)</sup>, 四分律<sup>13)</sup>, 智度論釋<sup>14)</sup>, 分別功德論<sup>15)</sup>, 摩訶僧祇律<sup>16)</sup>을 들 수 있는데, 버려진 조각 천을 이어 만든 옷을 세 가지의 壞色으로 염색하여 입음으로서 욕심을 버리고 집착과 탐욕에서 초연하고자 했고 일반속세인 및 외도들과의 차별을 두고자 했으며 또 다섯 가지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즉 첫째는 추위와 더위를 막음이고, 둘째는 부끄러움을 없애며, 셋째는 마을에 걸식을 하기 위함이고, 넷째는 道行에 있어 선행을 내고자 함이고, 다섯째는 몸의 청결을 위함이니라, 고 했는데 이는 당초의 승복이 깨끗하고 바른 행장을 수행자가 갖추도록 하기 위함에서 재정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라 하겠다.

옷의 가지 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여 구성형태로 三衣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5組 袈裟, 7組 袈裟, 9組 袈裟가 그것이다.

## 2. 승복색의 고찰

### 1) 袈裟의 색

색의 명칭으로서 이름지어진 袈裟는 범어로서 대개 壞色, 不正色으로 靑, 赤, 黃, 白, 黑 바로 이 5가지 색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불교가 衆人이 좋아하는 색을 피한 잡색을 썼던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즉 불공자 전용의 의복은 깨끗한 색으로 일반인들이 좋아하지 않은 색이나 깨끗한 색의 모든 것을 袈裟의 색이라고 한다.

원래 인도의 불교복식인 袈裟는 黃色이며 의례 때 신도들은 白色 사리를 입는 것을 볼 수 있다. 불교에서의 黃色은 방기·무욕·겸허를 의미하며 白色은 속죄의 의미가 있다<sup>17)</sup>. 또 삭발을 한 머리모양으로서 금욕의 의미를, 장식이 전혀 없는 가사를 착용하는 것은 빈곤과 무욕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sup>18)</sup> 즉 染色衣의 명칭으로서 袈裟는 佛弟子의 의복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이며 또한 이는 율의 조건으로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데 이를 袈裟染色, 染色衣, 不正色衣, 壞色衣, 黃褐色衣 등의 색깔에 관련된 명칭이 있고 三衣나 僧衣, 比丘衣라는 용도상의 명칭과 法衣, 法服, 佛衣, 功德衣라는 功德의 측면에서의 명칭이 있다.<sup>19)</sup>

袈裟의 색이 이처럼 不正色이라든가 壞色등 오염된 색을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흰 연꽃이 더러운 물에 오염되지 않은 듯 세상이 나를 더럽힐 수 없다”고 하는 불타의 교리가 탁한 것으로부터 청정법신을 수증케 하는 불성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戒律로서 규정지어진 袈裟의 색상을 살펴보면 靑, 黃, 赤, 白, 黑의 五正色과 緋, 紅, 紫, 綠, 碧의 五間色의 사용을 금하며 靑, 黑, 白의 壞色으로서 茜, 泥, 蘭을 허용하였다.<sup>20)</sup>

正色이나 五間色은 보통 속세인들이 즐겨 찾는 색깔들로서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색으로 여겨지며 만일 이를 사용하였을 경우 일반인들과의 구별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색깔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색 자체를 무너트리하고자 한 것이다. 계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여래가 착용하는 의복을 가사라 부르며, 여래가 드는 음식을 법식이라 부르니 이 가사라는 의복의 명칭은 색을 얻음으로서 그 이름을 얻게 되니 가사의 색으로 염색하게 되면 비로소 가사가 되는 것이다. 색을 얻은 옷은 소위 피색의 옷이니 이는 다른 말로 부정색 이라고도 하며 가사라는 자체의 의미는 바로 正衣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한다.<sup>21)</sup>

만약 비구가 세 옷을 얻게 되거든 세 가지 종류의 피색으로 염색해야 하나니 그 하나 하나의 색 가운데 색을 무너트리되 이는 바로 청, 흑, 목란이니라.<sup>22)</sup>

환언하면 가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세가지 색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여기서 新衣란 누더기나 버려진 옷을 얻게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율에 의하면 스님들의 옷은 반듯이 쓸모 없는 천으로 짓도록 되어있다.

新衣를 얻은 비구는 세 가지의 괴색 중에 한 가지의 색을 택하는데, 청색바탕의 괴색이나 진홍색 바탕의 괴색이나 흑갈색 바탕의 괴색을 취하라.<sup>23)</sup>

가르침에 의해서 착용하는 옷을 모두 괴색으로 하여 道와 상응케 하되 모두 청, 황, 적, 흑, 자색으로 물들지니라.<sup>24)</sup>고 적고 있다.

## 2) 長衫의 색과 형태

승복은 삼국 시대에 중국을 통하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데 이때문에 초기의 승복인 장삼의 형태나 색상은 그 당시의 중국의 것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게 나타내게 된다. 더욱이 서민들 사이에서 스머들기 시작하여 전래되었다가 공인된 이후부터는 왕실 중심으로 번창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사상과 불교의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이 결합되어 그 색상이 처음에는 중국의 것을 따랐다가 후에 우리만의 회색 빛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 대략 삼국시대 중엽 이후부터 중국의 黑長衫과 붉은 가사를 받아들여 전통적인 우리 옷 위에 착용하였다고 한다. 즉 초기에는 편삼, 직철, 군 등 중국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입었으나 차차 중국적인 형태와 색채는 점차 사라지고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복식인 上衣下袴의 형식을 내외로 입고 그 위에 예를 갖추기 위한 표의로서 장삼과 袈裟를 착용하게 되었다.<sup>25)</sup>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 이후 이조시대까지의 법의에 관한 기록은 매우 미흡하나 고구려의 쌍용총 벽화 중 동벽의 인물 행렬도에서 미루어 보면 고구려 장삼의 색상은 흑색임을 알 수가 있다.<sup>26)</sup>

고구려의 법의는 소매가 넓은 대수장(大袖狀)의 흑색포위에 편단우견으로 홍색과 청색으로 채색된 대가사를 입었으며 또한 흑색포 안에는 단령의 내의와 잔주름의 裙을 사용하고, 백제의 법의는 고구려와 같은 포를 입고 그 아래 군을 입었으며 갖도

단일색이나 또는 첩상가사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신라의 법의는 초기에는 고구려와 같이 흑색포나 흑은 당의 영향을 받은 편삼과 군 위에 가사를 착용하였고 말기에는 편삼과 裙이 연결된 직령 즉, 장삼 위에 가사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法衣의 경우 법계에 따라 法衣에 차등을 두었는데 가사의 종류로는 단일색 가사와 첩상가사, 수가사로 크게 구분 지어지며 법복은 대가사 일 때는 장수편삼과 紫囊, 5조 가사 일 때는 단수편삼과 黃囊을 입었고 또한 白衫, 장삼(하늘색)등을 입었으며 특히 장삼 깃에 동정을 단 것은 보현국사 장삼 때부터라고 하나 근거가 불분명하다.

조선시대의 법의는 대체로 자유롭게 의복을 착용하였는데 가사의 크기와 관계없이 단일색 가사로서 특히 고려의 수가사에 비해 조선시대의 것은 문양이 발달하여 가사의 문양이 다양해졌다. 장삼색이 초기에는 겨울용으로는 감색으로 물들었고 여름에는 흑색으로 물들었으나 세종 11년 2월 '僧人黑細麻布衣禁止'로 승복에 흑색사용을 금하였으며 같은 해에 '時散大小人員灰色衣服禁止'라 하여 시관·산관·대소인원은 회색의복을 착용하였으니 이때부터 회색 승복이 공공연히 착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말의 법의는 초기에는 승려의 法階에 따른 大衣色(袈裟)을 제정하여 색상과 무늬의 유무로서 등급을 가렸으나 일제하에서는 사찰령에 의해 법계에 따른 일제의 체제가 갖추어져서 가사뿐만 아니라 장삼에 대한 색·재질·제도도 함께 정해졌다. 그러다가 한말에 와서 승려의 법계에 따른 대의색 가사를 제정하여 색상과 무늬의 유무로서 등급을 두었는데<sup>27)</sup> 長衫에 있어서 紫色, 紺青色, 灰色, 黑色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紺色, 黑色, 灰色의 長衫과 비교가 된다. 그런데 紫色 長衫에 紅色袈裟의 착용은 일본의 황벽종 法服衣와 유사한 것으로 이 때의 법복은 일본의 법복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계종 장삼은 회색의 上衣下裳식의 직체형이고, 가사는 갈색으로 대가사와 목에 거는 5조 가사로 나누며, 태고종의 장삼은 회색이나 백색의 두루마기형과 도포형에, 가사는 홍색 유문견으로 일·월과 천·왕의 繡가 있는 가사로서 서로 차이점이 있다.<sup>28)</sup>

長衫은 예복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법회 때에

쓰이는 의복인데 도포나 철릭과 흡사하며 소매가 매우 넓고 허리에는 여분을 두어 큼직한 맞주름을 잡는 것이 특징이다. 겨드랑이 밑에 두루마기와 같은 무를 4개씩 넣는 경우도 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장삼은 것이 내모로 되어 있고 허리는 이음매 없이 끈을 달아 묶으며 겨드랑이 밑에 좌우 각각 두 폭씩 무를 넣고 길썬과 안썬은 각각 두 폭씩 장(長) 길이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름을 잡는 경우는 앞뒤에 각각 4개씩 8개의 맞주름을 잡으며 이를 8폭 장삼이라 하고 소매통은 앞뒤로 각각 4조각씩 되어 있다. 옛날에는 세조대를 가사 가슴 부분에 묶었다고 하는데 5조가사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약 8cm넓이 정도의 장삼과 같은 세조대를 매도록 되었으며 대가사나 7조가사 착용 시에는 가사 안에 매고 5조가사를 입을 때는 밖으로 묶어 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색상은 회색이고 재료는 목면이나 마를 사용하다가 해방 후 봉암사에서 일제히 합성섬유로 개정하여 주로 합성섬유를 쓰며 여름용으로 마와 모시에 먹물을 들여 입기도 한다.<sup>29)</sup>

### 3. 장삼 염색의 재현

#### 1) 가사의 괴색

가사의 색상은 울에 정해졌듯이 세 가지의 괴색을 하나 하나 괴색으로 염색하여 이루어지는데 울에는 괴색의 의미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이다.

울에 규정되어져 있는 괴색을 내기 위한 방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종류의 괴색은 靑, 泥, 靛이니라. 만일 靑衣를 얻으면 두 가지 종류에 응해야 하나니 바로 泥와 靛이요, 만일 泥衣를 얻으면 역시 두 종류로 정하니 靑과 靛이요, 만일 靛衣를 얻으면 역시 두 종류로 정하니 靑과 泥이다. 만일 黃衣를 얻으면 이는 삼종으로 정하니 靑, 泥, 靛이요, 赤衣를 얻은 것도 역시 삼종으로 정하니 靑, 泥, 靛이니라.<sup>30)</sup>

이는 가사의 괴색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즉 괴색에는 세 종류가 있다. 기본적으로 청색과 흑색과 적갈색이 있는데 靑은 푸른빛이고 泥는 흑색을 나타내며 靛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본적인 세 가지의 색상을 가지고서 괴색을 만드는데 청색바탕의 천을 얻었을 경우에는 흑색과 적갈색의 염색을 하고 흑색 바탕의 천을 얻었을 경우에는 청색과 적갈색의 염색을 하고, 적갈색 바탕의 천을 얻었을 경우에는 청색과 흑색의 염색을 한다. 만일 천의 바탕색이 청, 흑, 적갈색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색상일 경우에는 청, 흑, 적갈색 모두로 물들인다.

靑은 공청석과 같은 것들이요, 황은 황갈색을 뜻하는 것이요, 적은 저무는 하늘의 빛을 띠고, 자는 흙의 색이니 이 다섯 가지의 색은 상호 염색하여 부정색을 만들일새 괴색이라 이름한다.<sup>31)</sup>

이는 괴색을 만들기 위한 하나 하나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괴색의 의미가 다섯 가지의 원색의 사용을 금하도록 되어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염색을 하는 것은 세 가지 마음을 버리고자하는 것으로서 첫째는 즐겁고 좋게 꾸미는 마음을 버림이요 둘

<표 1> 울에 나타난 기본 괴색

色	原典	출처
靑, 黑, 木蘭	四分律 第16	신수대장경 권22
靑, 黑, 木蘭	曇無德出 四分僧戒本	신수대장경
靑, 黑, 木蘭	五分律 第9	신수대장경권22
靑, 泥	十誦律제15	신수대장경권23
靑, 泥, 赤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卷19	신수대장경 권23
靑, 黃, 赤, 黑, 紫	佛說梵網經46	
靑, 泥, 黑褐色	南傳大藏經 第2	
靑, 泥, 暗褐色	파리울	

째는 수용을 경천하는 마음을 버림이요, 셋째는 바름을 보지 않고 일컫는 마음을 버림이다.<sup>32)</sup>

실제 袈裟 염색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울문은 십송울에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새 옷을 입으면, 응당 세 가지 색의 그 하나 하나의 색에 따라서 원래의 옷 색깔은 없애야 하나니 청색이나 흑색이나 적황색이니라. 만약 비구가 이 세 가지의 색으로 그 옷의 원래 색깔을 없애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바일제가 된다. '새 옷'이란 비구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까닭으로, 이를 다시 세탁하여 처음 입는 까닭에 역시 새 옷이라 이름한다. '그 원래의 색깔을 없애는 세 가지 색깔'이란 청색이나 흑색이나 적황색이다. 만약 비구가 청색의 옷을 입게 되면, 두 가지의 색으로 정색해야 하나니 적황색이나 홍색이다. 만약 비구가 흑색의 옷을 얻으면, 역시 두 가지 색인, 청색이나 적황색으로 정색해야 한다. 만약 적황색의 옷을 얻으면, 역시 두 가지 색인, 청색이나 흑색으로 정색해야 한다. 만약 노란색 옷을 얻으면 응당 세 가지의 색으로 정색해야 하나니 청색, 흑색, 적황색이다. 빨간 색 옷을 얻으면 응당 세 가지 색으로 정색해야 하나니 청색, 흑색, 적황색이다. 흰옷을 얻으면 역시 세 가지의 색으로 정색해야 하나니 청색, 흑색, 적황색이다.<sup>33)</sup>

위와 같이 괴색을 위한 세 가지의 색상의 염료는 청은 쪽과 동청, 석청으로 하고 흑은 진흙을 사용하며, 적황색은 목란피와 꼭두서니의 뿌리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 즉 모든색은 이 세가지 청, 흑, 목란빛으로 반복되어 염색되는데 이것이 바로 괴색을 만드는 방식이다.

2) 장삼의 염색법

장삼의 회색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는 숯이나 재를 이용하여 물들이는 법과 먹물을 이용하는 법, 그리고 검은 색을 염색할 때 쓰이는 붉나무를 얹게 물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숯과 먹물로 한정하여 재현해 보고자 한다. 試布는 가로 38cm, 세로 360cm의 광목, 옥양목, 삼베로, 섬유는 풀

기만을 뻨 100%의 면과 마를 이용하였다. 각 조직의 구성은 plain형태이며 천 종류에 따른 무게는 광목 186 g/m<sup>2</sup>, 옥양목 179 g/m<sup>2</sup>, 삼베 149 g/m<sup>2</sup>이다.

염료의 양은 물3l에 숯 1kg과 먹물 3l을 사용한다.<표 2>

<표 2> 試布의 구성

시료 \ 성분	성분	조직	무게 (g/m <sup>2</sup> )
광목	면100%	plain	186
옥양목	면100%	plain	179
삼베	면100%	plain	149

(1) 숯 염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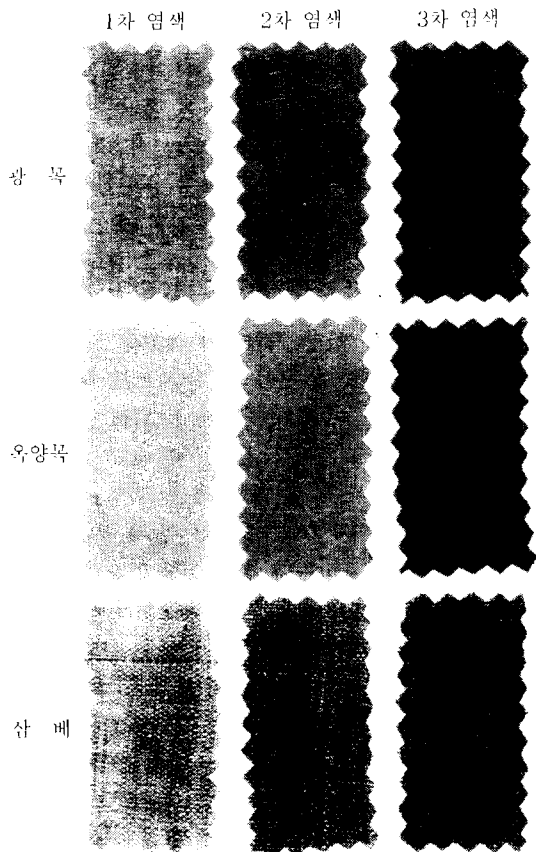
숯의 역사는 문헌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5만년전 구석기 시대에 출현했다고 볼 수가 있다. 숯은 "목탄" 또는 "활성탄"이라고도 하며 내부 표면적이 1g당 3백 평방 미터나 되는 미세한 구멍들 사이에 유해한 세균들을 흡착할 수 있는 호균이나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숯의 주성분은 탄소질이 80% 안팎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의 미네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숯의 기능은 흡수나 흡착, 흡취 및 살균효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특성이 염료로서도 작용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숯을 염료로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맑은 물에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담가 숯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기와 찌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얼룩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기름기와 찌물이 다 빠지고 나면 잘 말려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빵아 가루를 천 자루에 넣고 미지근한 물에서 잡아 흔들어 푼 다음 천을 넣어 염색한다. 처음에는 거의 염색이 되지 않고 흰 색상에 가까운 정도의 색깔을 보이는데 차츰 되풀이하여 주물러 주게 되면 옥 빛 같다가 아주 밝은 회색으로 점점 색상이 짙어지게 된다. 이때 매염제는 식초를 이용하며, 계속 반복되는 손 작업이 번거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는 매염제를 넣은 상태에서 끓이기도 한다. 삶아낸 천은 숯 물을 어느 정도 짜낸 다음 천으로 싸서 수십 번을 치댄 다음 깨끗한 물로 행군다. 그렇게 해야 얼룩이 생기지 않고 고루 염색이 된다.

비구니 스님들의 경우 두가지 염색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지근한 물에 숯가루를 넣고 계속해서 주무르는 경우와 끓는 물에 숯가루를 넣고 끓이면서 염색하는 경우이다. 원래는 미지근한 물에 숯가루를 넣고 계속해서 주물러 염색을 하는 것이었으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숯가루를 끓여 사용하기도 한다.

<숯 염색의 순서>

- ① 참나무 숯 1.5kg을 일주일에서 한 달간은 맑은 물에 담가 잿물과 기름기를 제거한 후 건져내어 그늘에서 말린다.
- ② 잘 말려진 참나무 숯을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체에 친다.
- ③ 미지근한 물이나 끓는 물 3l 에 숯가루 1kg을 넣어 끓인다.



<그림 1> 1차 숯염색법의 결과

- ④ 끓는 염료에 소금을 넣고 풀기를 뺀 천을 넣어 끓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이 과정은 3차례씩 한시간 이상 이루어진다.
- ⑤ 염색된 천을 맑은 물에 헹군 다음 햇빛에 말린다.

\* 숯은 아무리 잘게 부순 가루라 하더라도 그 굵기가 굵어서 손으로 계속해서 주무르지 않으면 염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냥 주무르지 않고서 천을 넣어 끓이게 되면 그 알갱이의 크기 때문에 얼룩이 생기게 되고 매우 지저분하게 염색이 되기 때문이다.

1차 숯 염색의 결과로 보면 옥양목이 가장 밝은 회색빛깔을 나타냈으며 광목이나 삼베의 경우는 약간 노란빛이 있는 듯한 회색빛깔이 나타났는데 3차 염색 결과에서는 옥양목의 회색빛깔이 선명한 회색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고 광목이나 마의 경우는 탁한 회색빛깔을 나타냈다. 이는 시료의 바탕색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2) 먹물염색법

먹의 기원은 중국의 후한시대의 휘탄에 의하여 발명되었다하며 고고학적 근거로 보아 한나라 이전(BC.2500 前)에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증명되지 않고 있다. 석목에서 발달하여 오늘날 사용되는 탄소분말로 이루어진 탄소먹의 발달까지에서 한국먹의 사용시기는 일본에 소장되어져 있는 '신라먹'과 고려시대의 송연먹 그리고 조선시대의 다양한 먹이 제작되었으며 양덕과 해주의 먹이 유명하다.

「일본서기」에는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영양왕 12년에 제먹법을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것은 삼국시대에 좋은 먹이 생산되고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들이다. 또 고려 때에는 맹주에서 만들어 진 것을 증명하는 「고려도경」의 서술도 있으며, 이인로의 「파한집」에 직접 먹 제조를 위해 맹성에 출수함을 기록한 바도 있어 고려시대의 맹산 지역이 먹의 제조처임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송연으로 먹을 제조하다가, '기름연기(유연)를 가지고 제조하여 유매묵이라고 부른다'고 「지봉유설」에서 밝히고 있어 이수광



이 살았던 시기(1563~1628)에는 유연먹을 만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선먹에 대한 평가는 유연먹으로서 짙고 검은 빛 보다는 윤기가 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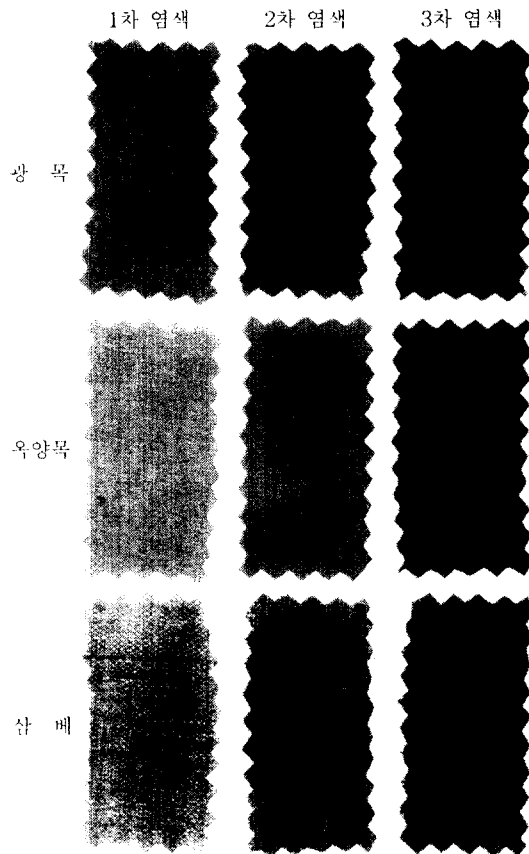
조선 중기까지는 송연먹(송연먹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청흑색 빛을 띤다)이 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중기 이후에는 면실유, 채종유, 대두유를 사용한 유연먹의 제조가 주를 이루어 흑묵먹 제조되었을 뿐 채먹은 생산해 내지 못하였다. 송연먹은 윤기가 없이 검기만 하다고 하여 개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지만 소규모 민간먹장에 의해 품질이 떨어지는 먹이 생산되면서 더욱 많이 인구에 회자되던 별칭이기도 한다.<sup>34)</sup>

규합총서에 의하면 “호품 당목을 2라 물에 타고 싼 최를 잠간 쳐 흰 명지나 비다네의 드리면 짓흔 제빛의 붉고 푸른 빛을 띄어 유체 소오하고 향내가 괴이하니라.” 이처럼 회색 빛깔을 염색하는데 먹물이 이용되었다.<sup>35)</sup> 먹물 염색법은 여러 색상의 먹중에서 흑묵을 이용한다.

<먹물 염색의 순서>

- ① 물 3l 에 먹물 3l 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염액을 만든다.
- ② 먹물을 90℃ 이상으로 팔팔 끓이게 되면 먹 자체에 있는 기름기들이 위로 떠오른다. 이 때 건져내려 하지 말고 계속해서 10분간 끓인다.
- ③ 끓는 먹물에 천을 넣어 주무르다 끓이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은 최소 30십분 이상 거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게 되면 먹물 속에서 나타나는 기름기의 실체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염색은 고르게 이루어진다.
- ④ 염색된 천을 맑은 물에 잘 헹구어 햇빛에서 말린다.

먹물염색 3차 실시 후 삼베는 짙은 노란기가 있는 회색으로, 옥양복은 밝은 회색빛깔로 나타나 전체적인 색깔 변화의 폭은 작았다. 그러나 광목이나 삼베의 경우 1차, 2차 염색에서는 색상의 변화가 미미하다가 3차 염색 후에는 짙은 회색을 나타내었다.



<그림 2> 먹물 염색법의 결과

III. 결 론

불교는 삼국시대 때 우리민족의 고유사상과 사상적인 통일을 이루어 온 까닭에 지금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불교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교 복식의 양상은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화되어 왔다. 승복에서도 원래 가사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던 인도의 복식 모습과 다르게 장삼 위에 가사를 두르는 의복형태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중국의 불교복식으로부터 전래된 장삼의 색상에 있어서도 중국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민족의 양식에 맞게 변화되었다. 즉 검은 빛깔은 죽은 사람의 색이라 하여 멀리하고자 하였기에 일본의 검은 색 승복과 다른 회색빛깔을 택하였던 것이다.

전통적인 승복 염색 방법이 복식 문화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종교적인 측면에서 승복의 빛깔이 갖는 상징성에 관한 것이다. 즉 승복의 빛깔이 괴색을 취하는 것은 승복을 착용함으로써 일반 속세인들과의 확실한 구별을 하기 위함과 색을 무너트렸기 때문에 장식적인 미적 가치가 사라지므로 淸忌, 奢侈, 盜難 등에서 마음을 멀리하기 위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천연염료의 사용으로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숯과 먹의 회색빛깔 염색은 앞으로 많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숯에 관하여 수없이 쏟아져 나온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숯이 염료로서 갖는 역할과 가치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회색염료로서의 숯은 조선 시대 세종 때 흑색 금제령이 시행되었던 이후 검은 색과 짙은 회색을 피하여 아주 엷은 회색 빛이나 이보다 엷은 옥빛이 나도록 염색하는데 숯이 사용되던 때도 있었다. 흑색 금제령이 사라지게 된 이후 회색의 장삼은 예전처럼 사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어떤 절에서는 아직도 그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 회색빛깔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다.

셋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승복 염색 방법의 계승은 우리 염색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복식문화와 깊이 관련된 불교 복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계승 발전해 갈 수 있는 과학적 염색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및 미주

- 1) 行事鈔 卷下1
- 2) 佛說梵網經
- 3) 四分律 名儀 標釋 26
- 4) 薩婆多論
- 5) 梵網經 下
- 6) 行事鈔資持記 卷 30
- 7) 四分律 藏 第40
- 8) 智度論釋
- 9) 分別功德論
- 10) 摩訶僧祇律
- 11) 增輝記
- 12) 南傳巴利律
- 13) 金吉祥, 『불교대사전』, 서울 : 흥법원, 1998.
- 14) 김보영, 『중국명적』, 서울 : 숙명대학교출판사, 1996.
- 15) 김성국, 『한글대장경 심송술』, 서울 : 동국역경원, 1995.
- 16) 김성수의 6인, 『한국의 전통 공예 기술』, 서울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 17) 송양완, 『규합총서』, 서울 : 寶晉齋, 1997.
- 18)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1974.
- 19) 이창복, 『대한 식물도감』, 서울 : 백양당, 1980.
- 20) 일 연·임양목, 『나랏말습2-삼국유사2』, 서울 : 서울출판사, 1997.
- 21) 일 타, 『법광경 보살계3』, 서울 : 효림출판사, 1995.
- 22) 최광식, "신라의 불교전래, 수용 및 공인", 『신라사상의 재조명』, 신라문화선양회, 1991.
- 23) 홍일식, 『한국 문화사 대계』, 서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78.
- 24) 한국사6, 『중세사회의 성립-2』, 서울 : 한길사, 1994.
- 25) 권영실·조우현 "인도 종교 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1997.
- 26) 金炫成, "양모 직물의 황토 염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27) 노은희, "광물성 천연염료 황토 염색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색채학회, 1999.
- 28) 박명희, "본초강목에 나타난 염료 식물의 염색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29) 안명숙, "여범의에 관한 연구(1)-가사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89.
- 30) 오정숙 "다색성 식물염료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84.
- 31) 유소영, "우리나라의 승복을 이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현재의 승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1.
- 32) 유영자, "한국의 승복에 대한 연구: 가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79.
- 33) 이규태, "한국인의 색채감각", 월간 디자인, 1981.
- 34) 이순덕, "韓國製漿의 象徵性에 대한 研究-가사에 나타난 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1992.
- 35) 임영자 "한국 종교복식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89.
- 36) 정필순, "한국 자연 염료와 염색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5.
- 37) 최경옥, "홍화에 대한 연구 : 매염제별 발색 효과 비교"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1986.
- 38) 최연규, "홍을 이용한 천연 염색에 관한 연구", 제44회 전국과학박람회.
- 39) 한미애, "한국 승려 가사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1989.

- 40) 1999학년도 특기, 적성교육 자료집개발, "천연염색"-광주 교육아카데미 생물교과연구회, 광주광역시교육청.
- 1) 한미예, "한국승려가사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16.
- 2)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이대출판부, 1987), p.201.
- 3) 法興 편역, 釋日陀 監수, 「戒律綱要」(松廣寺, 放牛山房), p.3
- 4) 金吉祥, 「불교대사전」, 흥법원, 1998. p.11, 참조
- 5) 한미예, "한국승려가사에관한고찰",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1989), P.92.
- 6) 行事鈔 卷下1  
"僧祇云 三衣者是 賢聖沙門의 標幟요,鉢은 是出家人의 什器라. 非俗人所爲일새 應執持三衣瓦鉢하면 卽是 少欲少事等이니라."
- 7) 佛子는 常應 二時頭陀와 冬夏坐禪에 常用 衣鉢하되 常隨 其身을 如鳥兩翼이니라.-佛說梵網經-
- 8) 行事鈔卷下1  
夫形居世累에 必假威儀니 障蔽추形인대 勿過衣服이라. 若受用有方이면 則不生咎戾니 必領納이요, 乖式이면 便自陷深愆일새니라.
- 9) 四分律 名儀標釋 26  
衣服常儀는 乃出家之樞要니 受用에 必須依制하고 著縛에 勿使乖式이니라. 解脫이 由斯爲始하고 罪咎 亦此是先하니니 持犯이 炳然하야 律有成則하니라. 自當檢閱하야 莫致疑誤이다.
- 10) 薩婆多論  
欲現未曾有法故니 一切 九十六種 外道 無此三壞染衣名이라 爲異外道故니라.
- 11) 梵網經 下  
若一切國土中에 國人の 所着衣服을 比丘는 與基俗服으로 有異니라.
- 12) 薩婆多論  
欲現未曾有法故니 一切 九十六種 外道 無此三壞染衣名이라 爲異外道故니라.
- 13) 行事鈔資持記 卷 30  
薩婆多에는 五意로 制三衣(法衣)也니, 一은 遮障寒暑요, 二는 除無慚愧요, 三은 聚落乞食이요, 四는 在道行生善이요, 五는 威儀清淨故니라.
- 14) 行事鈔資持記 卷 30  
薩婆多에는 五意로 制三衣(法衣)也니, 一은 遮障寒暑요, 二는 除無慚愧요, 三은 聚落乞食이요, 四는 在道行生善이요, 五는 威儀清淨故니라.
- 15) 行事鈔資持記 卷 30  
薩婆多에는 五意로 制三衣(法衣)也니, 一은 遮障寒暑요, 二는 除無慚愧요, 三은 聚落乞食이요, 四는 在道行生善이요, 五는 威儀清淨故니라.
- 16) 智度論釋  
白衣는 求樂故로 畜種種衣하고 外道는 苦行故로 裸形無恥할새 是故로 佛弟子는 捨二邊하고 處中道하야 少欲知足이니 但畜三衣也니라.
- 17) 한미예, "한국 승려 가사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1989), p.31
- 18) 권영실·조우현, "인도 종교 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vol. 21, no. 4 (1997), pp.667~688.
- 19) 유영자, "한국의 승복에 대한 연구:가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1979), p.8.
- 20) 한미예, 전계서, p.34
- 21) 行事鈔資持記 卷30  
如來所着衣를 名曰袈裟요, 所食者를 名爲法食이니 此袈裟衣는 從色得名이니 染作袈裟色하면 味有袈裟味라. 從色名者는 소위 壞色衣也이니 此醜不正色이 是也요, 袈裟味者는 此示非正衣名이니라.
- 22) 四分律 第 16  
若比丘가 得新衣어든 當作三種壞色이니 一一色中에 隨意壞하되 靑 黑 木蘭 이니라.
- 23) 南傳巴利律  
新衣를 得한 比丘는 三種壞色中에 一壞色을 취하라. 或靑色(Nila) 或泥色(Kaddama) 或黑褐色(Kalasma)이니라.
- 24) 梵網經  
應教身所着衣를 皆使壞色하야 與道로 相應케 하되 皆染使靑黃赤黑紫色이니라.
- 25) 유소영, "우리나라의 僧服을 應用한 服飾 디자인 研究", (석사학위논문 흥익대학교, 1991), p.9.
- 26) 임영자, "한국 종교 복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89), pp.193~194.
- 27) 임영자, 전계서, pp.194~195.
- 28) 임영자, 전계서, p.195.
- 29) 유소영, "우리나라의 승복을 이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현재의 승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흥익대학교, 1991), p.25.
- 30) 十誦律 第 15  
三種壞色者는 若靑若泥若茜이니라. 得靑衣者는 應二種으로 淨이니 若泥若茜이요, 若得泥衣者는 亦二種으로 淨이니 若靑若茜이요, 若得茜衣者도 亦二種으로 淨이니 若靑若泥요, 若得黃衣者는 應三種으로 淨이니 靑泥茜이요, 得赤衣者도 亦三種으로 淨이니 靑泥茜이니라.
- 31) 天台菩薩戒疏  
靑謂靑石等이요 黃卽黃褐이요 赤謂乾陀色이요 黑謂屋塵黑色이요 紫는 土色이니 此等五色은 互相參染하야 成不正色일새 名爲壞色이니라.
- 32) 根本薩婆多部律攝

染衣者는 捨三種心故니 一喜好玩飾心 二輕賤受用心  
三矯不見名稱心

- 33) 김성국, 「한글대장경, 십송울제15」, (서울: 동국역경원, 1995), p.452.
- 34) 김보영, 「중국명역」, (서울: 숙명대학교 출판사, 1996), p.118
- 35) 송양완, 「규합총서」, (서울: 寶晉齋, 1997), p.153.